

4분기 이후 매출상승 전망

단암전자통신

단암전자통신의 매출이 CDMA 장비 중국 납품, 한국통신 입찰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이후 개선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통신의 ADSL 2차 장비 입찰 업체로 선정됐으며 차이나 유니콤의 1차 CDMA 장비입찰에서 삼성전자가 공급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수혜가 발생, 매출이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자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중국 진출을 본격화할 2·4분기 이후 매출이 급신장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문형 냉장고 『클라쎄(Klasse)』 출시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양문형(side by side) 냉장고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대우전자는 '클라쎄(Klasse)'라는 브랜드로 초절전 디스펜서형 고급형 양문냉장고를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하게된 대우전자 『클라쎄』는 디스펜서와 홈바를 갖춘 650리터급 디럭스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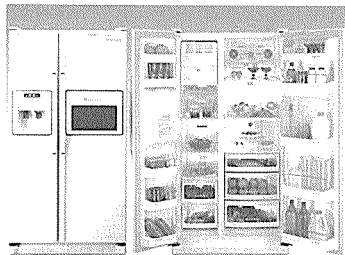
WIDE 블랙미러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680리터급 두 모델이다.

냉장실과 냉동실에 각각 독립적으로 냉각기가 부착된 맞춤형 각방식의 『클라쎄』는 냉장고 내·외부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디지털제어기술로 동급대비 40%가량의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초절전 냉장고다.

또한 한국의 가옥구조에 적합한 최저소음(24db)으로 설계되어 한밤중에도 조용하고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다.

94년 탱크냉장고 출시 이후 국내 냉장고 시장에서 30%안팎의 높은 점유율을 지켜온 대우전자는 고급 양문형냉장고 『클라쎄』출시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양문형 냉장고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냉장고 시장 규모는 연간 200만대 수준으로 그중 양문형 냉장고의 경우 올해 약 40만대로 전체 수요의 2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고 혼수시장을 포함, 그 수요는 점차 상승될 것으로



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우전자는 『클라쎄 서비스 전담반』을 구축, 배달/설치 및 애프터서비스까지 1:1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차별화 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클라쎄 사용 평가단』을 뽑아 생생한 고객목소리를 개발 및 마케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전자 냉장고 사업부 상무는 "국내에서 양문형 냉장고 시장이 급성장 함에 따라 『클라쎄』를 출시하였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유럽 및 미주지역까지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F모듈 개발

듀얼아이

듀얼아이는 13.56Mhz대역의 A, B타입 전송방식을 만족시키는 통합 RF모듈 '듀얼아이-ABM'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현재 사용중인 교통카드와 K캐시 표준에 적용이 가능해 국내 교통카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필립스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토로라, 삼성전자, ATMEL 등이 적용하고 있는 B타입 전송에도 적용된다.

현재 국내 교통카드 RF모듈은 필립스의 독자적인 제품이

사용돼 타 회사제품과의 호환이 불가능한데 이번 개발로 1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듀얼아이는 이 제품의 1차 테스트를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듀얼아이-ABM의 회로를 원칩화하는 작업도 하반기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듀얼아이 사장은 "이번 개발을 계기로 기존 교통카드를 K캐시 표준과 호환할 수 있어 하나의 RF카드를 가지고 출입통제·요금지불·전산망 접속 등이 가능한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정맥인식, 지문인식 업체들과 기술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경제 공헌도 1위

삼성코닝

삼성코닝은 서울대학교 국제경영연구 센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공헌도 1위 기업으로 선정 되었다.

서울대 국제경영연구 센터가 한국에 진출한 총 104개 글로벌 기업중에서 재무건 전성, 한국경제 활성화 공헌도, 무역수지 및 기술 이전기여도 등 3개 항목 모두 1위를 기록하여 삼성코닝이 종합 공헌도 1위 기업으로

<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공헌도 상위 10개 업체 >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	총점
1	삼성코닝[주]	미국	비금속광물	43.51
2	한국바스프[주]	독일	화학물 및 화학제품	35.92
3	호텔롯데	일본	숙박업	34.48
4	한국코카콜라보틀링	네델란드	음식료품	34.45
5	한국피엔지[주]	미국	펄프, 종이	20.52
6	캡스	아일랜드	광고업체	18.71
7	한국IBM	미국	상품중개업	17.83
8	한국후지제록스[주]	일본	사무,계산,회계기계	16.76
9	한국공조[주]	미국	자동차,트레일러	16.17
10	한독약품[주]	독일	화학물,화학약품	15.63

선정 되었다.

삼성코닝은 1973년 삼성그룹과 미코닝이 지분을 50:50 합작으로 설립되어 브라운관용 유리 국산화와 국내 TV메이커 등 한국전자산업의 발전에 공헌하였고 완전평면 브라운관용유리, PDP용 코팅유리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해는 매출 1조 2천 여억원을 달성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영연구 센터는 삼성코닝을 한국경제 공헌도 1위로 선정하게 된 것은 최고의 수출로 국내경제에 기여한 기업이면서 외국투자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제품과 기술의 노하우 전수와 기술 이전이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총 104기업 중 삼성코닝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경제공헌도 1위 기업으로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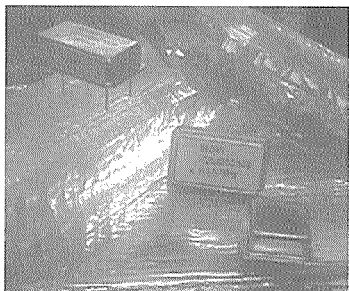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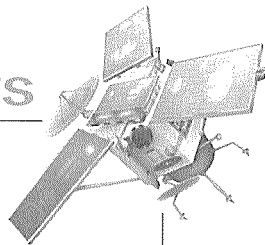
이번 발표 자료는 IMF 경제

위기 발생 후 1998년 ~ 2000년 사이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이 직접투자가 유치 되면서 최근에는 투자효과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분석 자료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대상 기업은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50%를 넘고 직접투자금액이 100만달러가 넘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257개 기업에서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신용평가에 의해 자료 수집이 가능한 104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VCXO개발

서안전자

이동통신부품 전문 생산업체인 서안전자가 그동안 전량 수



입에 의존해온 이동통신 중계기용 고주파 전압제어수정발진기(VCXO)를 국산화했다.

온도보상수정발진기(TCXO) 등 이동통신부품을 생산해온 서안전자는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2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2년간의 연구 끝에 155MHz급의 고주파 대역에서 안정적으로 음성을 송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VCXO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비동기위상루프(PLL)형 IC를 적용한 기존 VCXO의 경우 잡음지수(일명 노이즈)가 50피코초(ps) 이상일 정도로 높아 음성신호를 안정적으로 송신할 수 없는 데 비해 이 제품은 수정진동자를 이용, 10ps 정도의 저잡음만을 발생, 선명한 음성을 송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안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VCXO를 양산하기 위해 이미 성남 분당에 월산 2만개 규모의 양산라인을 구축,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듀얼밴드 안테나 스위치 모듈 개발

아이엠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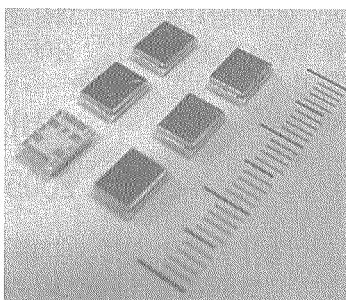
다층소성 세라믹기판을 이용한 이동전화단말기용 안테나 스위치 모듈이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아이엠텍은 유럽형 이동전화 방식인 EGSM과 DCS180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듀얼밴드 안테나 스위치 모듈을 개발했다.

듀얼밴드 안테나 스위치 모듈은 단말기에서 두 개의 사용주파수 대역을 송신신호와 수신신호를 자동 분리해 스위칭하는 핵심부품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품은 LPF(Low Pass Filter) 및 듀플렉서, 분과정류필터, 스위치 등을 한 개의 통합 모듈로 구현, 초소형(6.7×5.0×2.0mm)으로 디자인됐다.

특히 이 제품은 1mm 두께 내에 20층의 다층적층 공법을 적용, 기존 세라믹 소성 온도인 섭



씨 1350도보다 낮은 섭씨 850도에서 소성함으로써 신호특성과 손실특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는 이 제품을 현재 건설중인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 본사 공장에서 월 20만개 규모로 양산, 유럽 및 미주지역으로 수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미 미국과 고주파(RF) IC전문업체와 마케팅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 회사는 또 GSM/EGSM/DCS1800 방식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삼중밴드 커플러 내장형 통합 복합부품 모듈을 개발,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글로벌 통합 제품설계 시스템 개발

LG전자

인터넷을 통해 시공과 언어를 초월한 제품설계시대가 열렸다.

LG전자가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해 세계 각국 각종 언어에 따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OSD(On Screen Display: 화면상태 제어 표시기능)에 대한 모든 국내의 전자제품 설계업무를 PC 상에서 언어장벽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우선 컬러TV의 OSD 개발업무에 본격 적용키로 했다.

OSIM(On screen Display Simul

ator)이라고 명명한 이번 비즈니스 모델은 가상공간에 전세계 135개국, 35개 언어의 OSD설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LG전자가 공동설립한 전자/하이테크 산업분야의 세계최대규모 기업간(B2B)전자상거래회사인 E2open社(e2open.com)의 제품개발협업서비스(Product Collaboration)를 활용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설계업무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LG전자는 같은 기종의 TV라도 세계 각국 수출시장의 언어로 대응해야 함에 따라 해외 연구원들과 별도로 공동설계 해야하는 OSD 개발업무를 세계 각국 언어의 구분없이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OSIM를 이용하여 설계함으로써 기존 설계 오류 및 해외출장 없이 인터넷상에서 원격 화상연결을 통해 해외 현지 연구원들과 서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설계작업 전과정을 시간, 공간, 언어 장벽없이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LG전자는 이번 OSIM을 국내의 비즈니스 모델로 특허



출원 중이며, 이를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로 향후 로열티 수입도 예상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OSIM 비즈니스 모델은 컬러TV 이외에도 디지털TV, PDP(벽걸이) TV, DVD플레이어, 휴대폰, 모니터 등 영상을 표현하는 모든 전자 제품에 적용할 수 있어 자체 활용범위 확대는 물론 여타 기업들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OSIM비즈니스 모델을 우선 구미TV공장, 디자인 연구소를 비롯해 영국, 인도 등 해외 법인에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 11개 TV 생산법인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인버터용 SR모터 개발

LG전자

LG전자가 냉장고·세탁기 등에 장착,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인버터용 SR(Switched Reluctance)모터를 개발했다.

LG전자가 10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인버터용 SR모터는 인버터 기술을 적용, 소비전력을 절감하면서도 생산비는 일반 모터와 동일해 제품가격이 높아진다는 인버터 기술의 단점을 해

결한 차세대 모터다.

특히 이 제품은 고가의 영구자석을 철심으로 적용한 기존 제품에 비해 값싼 전자석을 철심으로 채택해 생산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또 전압·주파수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생산해야 하는 기존 모터와 달리 이 제품은 자체 전압·주파수 변환 기능을 내장,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전압·주파수에 대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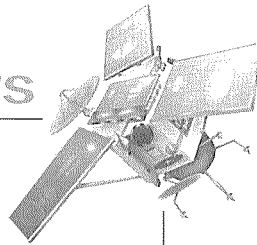
LG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인버터 SR모터를 자사 에어컨에 우선 채택하고 냉장고·세탁기·청소기 등 모터가 필요한 모든 백색가전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RF사업 강화

LG이노텍

LG이노텍은 2003년까지 고주파(RF) 관련 핵심연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는 등 RF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이노텍은 표면탄성파(SAW) 필터·듀플렉서·전력증폭기모듈(PAM) 등 주요 RF 부품사업을 전략분야로 키우기 위해 러시아를 포함한 국내외 RF 부문의 고급 엔지니어를 영입할 예정이다.



LG이노텍은 2002년 중국 CDMA 시장이 급성장, 관련 RF 부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작년에 SAW필터 부문에만 400여억원을 투자했다.

새 SMS 기술 개발

지멘텍

일반기업의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SMS) 기술이 개발됐다.

소프트웨어 벤처업체인 지멘텍은 용량이 큰 운영체제(OS)나 일반 응용소프트웨어를 원격지에서 고속으로 설치 또는 삭제하고 각종 전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리모' 시리즈 제품을 개발·출시했다.

리모시리즈는 원격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리모인'과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삭제하고 실행을 차단하는 '리모가드', 컴퓨터 자산과 정보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리모인포' 및 '리모콘' 등 4개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원격설치용 솔루션인 리모인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각 클라이언트가 또 다른 클라이언트로 동시에 설치하는 플러딩방식을 채택,

수백대 컴퓨터에 대한 대용량 프로그램 설치를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다.

또 리모가드는 해킹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한하고 유해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원천차단한다.

따라서 리모솔루션을 활용하면 몇개의 정품 소프트웨어만 구입해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어 전산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인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도 막을 수 있다.

지멘텍의 한 관계자는 "리모시리즈를 도입하는 일반기업은 회사 전체 소프트웨어 사용방식을 사내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ASP)형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미 서울대공대 전산실(PC 700대)과 비트교육센터(PC 850대) 등에 적용돼 제품 성능을 입증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멘텍은 의료정보업체인 비트컴퓨터와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각종 전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업 및 학원 전산실을 상대로 리모시리즈의 확대·공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폭 스트랩 폴리스위치 출시

타이코 레이캠

타이코 레이캠은 차세대 디자인 개념의 리튬 폴리머(Li-Polymer) 배터리 보호 기능을 가진 제품을 선보였다.

타이코 레이캠에서 새로 출시한 소폭의 스트랩 제품은 일반적으로 휴대폰, 랩톱(laptop), 라디오, 캠코더 등과 다른 휴대용 장비들에 사용되는 충전용 배터리 팩의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시킨 제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디바이스는 회로 쇼트와 과충전 등과 같은 전원 불량 발생시 리튬 폴리머(Li-Polymer) 배터리를 보호한다.

이는 두께가 0.35mm인 소폭의 평평한 폼팩터를 가지며 실제 팩의 두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리튬 폴리머(Li-Polymer) 팩 디자인에 적합한 소자이다.

새롭게 출시된 소폭의 스트랩 제품의 샘플은 배터리 회로 보호 애플리케이션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재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폴리스위치 VLR 소재로 만들어진 디바이스들은 낮은 저항, 향상된 열 보호, 빠른 트립 시간을 갖고, 배터리 수명과 사용시간의 연장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VTP 또는 LTP 소재로 만들어진 디바이스들은 VLR 시리즈에 비하여 높은 유지 전류를 갖게 되어 보다 나은 열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통신부품사로 첨단제품
잇단 개발

한국전자공업

한국전자공업이 자동차 부품에서 정보통신 부품 전문업체로 변신한다.

이 회사는 매출액 5%의 연구비 투입과 중앙 연구소 설립 등 최근 7년간 연구개발에 치중해 온 결과 통신 부품 개발에 잇달아 성공해 이 분야에서만 올해 1백5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2003년에는 매출(2천2백억원 예상)의 30%를 정보통신부품 분야에서 일궈낼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 95년 점프코드 양산을 시작으로 감쇄기, 커플러, 광아이슬레이터, 광파장다중분할기(DWDM) 등 광통신 부품을 속속 생산하고 있다.

이중 광파장다중분할기는 다층 박막코팅이라는 첨단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연간 1천6백만달러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단자는 또 무선 통신부품인 전압제어발전기(VCO), 온도보상형 수정발전기(TCXO)를 국산화, 수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는 서큘레이터, 옵티컬 스위치 등 광통신 모듈 제품과 소형 수정발전기 등의 첨단 부

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800기가급 DWDM망 공급

한국루슨트테크놀로지스

한국루슨트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지엔지네트웍스와 기간망용 800기가급 고밀도파장분할다중화(DWDM)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엔지네트웍스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장거리 네트워크용 DWDM 시스템 공급업체로 루슨트를, 설치장비로 '웨이브스타(WaveStar™) OLS 800G'를 선정, 올 9월까지 고대역폭의 광전송망을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80채널급 광전송 시스템인 '웨이브스타 OLS 800G'는 초당 최대 800Gb의 전송 용량을 지닌 DWDM시스템으로, 초당 한 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동시에 1억6000만개 전송할 수 있는 성능이다.

이 시스템은 대역폭 확대가 요구될 경우 최대 초당 1.6테라비트까지 용량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루슨트가 장비를 공급하는 DWDM망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을 연결하는 총연장 1

만5000km 길이의 해저 광케이블 구축 프로젝트인 C2CCN(City to City Cable Network)의 일부로, 지엔지는 이 프로젝트에서 국내 육양국과 국내 인입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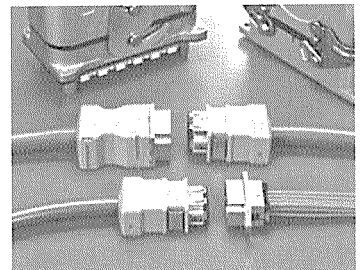
컴팩트 로보틱 커넥터(CRC)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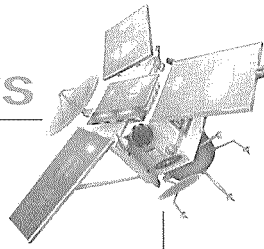
한국몰렉스

소형로봇 및 모터를 구동하는 기구와 같은 공장 자동화를 위한, 표준화된 전력과 시그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컴팩트 로보틱 커넥터(CRC)가 몰렉스에서 출시되었다.

몰렉스는 이 커넥터를 고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형로봇을 사용하는 반도체 조립이나 크린 룸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커넥터 크기는 종래의 산업용 로봇에 쓰이는 중장비 I/O 커넥터의 1/15정도이다. 이 시스템은 케이블의 단순화를 도와주는 새로운 소형 종류를 대표하며, 전





선과 패널 연결 및 전선과 전선 연결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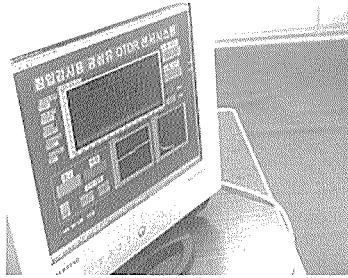
CRC시스템은 30핀까지의 다양한 종류와 7암페어, 차폐식(shielding), 3mm의 고밀도 그리드(grid)를 제공하는 유일한 복합형 산업용 I/O 커넥터 시스템이다.

새로운 CRC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콤팩트하며 서클러와 전력, 시리얼 포트와 같은 다른 여러 커넥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구배선 작업을 줄이기에 공간 및 가격에의 절감을 가져온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제거가 가능한 원터치 하우징이다.

모듈러 하우징은 스피링 잠금 기능으로 부착된 패널로부터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 이로 말미암아 후 처리가 용이하다.

CRC 커넥터는 부품의 형태 또는 완전한 케이블 조립으로 제공가능하며, 미결합시 먼지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먼지방지캡도 제공 가능하다. 이 제품은 UL, CSA, TUV, VDE 호환이 가능하다.



의해 개발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산업측정표준부 비파괴계측그룹 권일범 박사팀은 국내 최초로 광섬유 센서를 이용 중요시설물 등의 외곽주변을 감시하기 위한 광섬유 브릴루앙 산란형 센서 개발에 성공했다.

이 센서 시스템은 땅 속 5cm 정도에 매설해 침입자가 광섬유를 밟는 압력에 따라 광섬유의 내부를 진행하는 빛의 브릴루앙 광산란 강도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 침입 위치를 구분이 가능하다.

2003년 위성휴대통신 서비스 제공

한국통신

한국통신은 오는 2003년부터 전세계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한 위성 휴대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통은 미 아이코(ICO)사의 범세계 위성 휴대통신 사업인 ICO-GMPCS(범세계 위성휴대

통신서비스)의 위성 12기가 모두 발사되는 2003년부터 국내에서 위성 휴대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ICO-GMPCS사업은 지구상공 1만390km의 중궤도에 위성 12기를 올려놓고 지상의 중계지국(SAN)과 상향 5GHz, 하향 7GHz의 주파수로 교신하게 되며 SAN은 개인 휴대폰과 2~2.5GHz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전화, 팩스, 데이터 등 휴대통신서비스를 제공할게 된다.

ICO서비스는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상의 이동전화 중계기가 없는 사막이나 해상 등에서 유용하며, 향후 IMT-2000서비스와 보완관계가 될 것이라고 한통은 설명했다.

한통 관계자는 "작년 3월 첫 번째 ICO 위성이 발사에 실패했으나 지난 6월19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금난으로 한때 어려움에 처했던 ICO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했다"면서 "ICO사는 지상 IMT-2000망과 연동이 가능한 위성 IMT-2000 및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보강해 2003년 상반기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통은 ICO가 위성이동통신교환기 등으로 설치한 천안 SAN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ICO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국내에서 ICO서비스 가입자 모집 등 영업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감시용 光섬유센서 개발

KRI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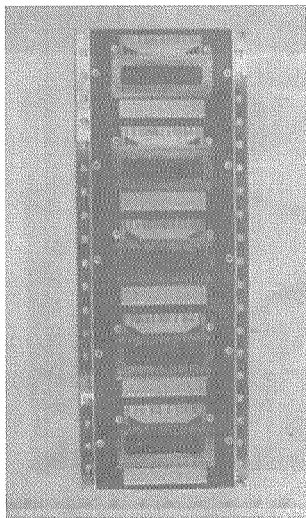
광역 침입자 감시용 광섬유 센서 시스템이 국내 연구진에

전계발광 디스플레이용 개발

하이닉스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는 초박형 브라운관(CRT)의 일종인 전계발광 디스플레이(FED: Field Emission Display)용 핵심 비메모리반도체를 개발했다.

FED는 ▲얇은 두께 ▲높은



해상도 ▲넓은 시야각 ▲빠른 동작 ▲적은 소비전력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차세대 주력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제품이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개발한 제품은 컬럼(column)구동 IC와 로우(row)구동 IC로, 고전압 공정을 이용한 저전력, 고속동작(65MHz)이 특징이다.

하이닉스는 이 제품을 하반기부터 양산, FED 기술 선도업체인 미국 캔디슨트(Candescent)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캔디슨트는 이미 하이닉스의 칩을 적용한 FED 패널을 이달 초 미국 샌제이에서 개최된 'SID(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 2001' 전시회에 선을 보인바 있다.

하이닉스측은 연말까지 이번 제품의 후속으로 384채널 컬럼 드라이버, 480채널 컬럼 드라이버, 240 및 256채널 로우 드라이버 등을 개발, FED구동 칩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알프스와 차량위성방송 수신안테나 분야 제휴

현대디지털서비스

지난 3월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분사한 현대디지털서비스가 한국 알프스와 차량용 위성방송수신 능동안테나'의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양사가 공동개발하게 될 차량용 위성안테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사업자가 오는 10월부터 시험방송하는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제품으로 직경 30cm, 무게 3.3kg의 세계 최소 크기다.

회사측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알프스와 국내 애프터서비스 및 유통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현대디지털서비스가 공조체제를 갖추므로써 향후 위성방송기기 관련장비 및 부품시장 선점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